

# 경복궁

글 조보희 기자 ·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



부경군대사료연구소 제공

#1948

상행에서 내려다본 경복궁. 정문인 광화문이 없다.

일제강점기 경복궁 안에 근정전과 광화문을 가로막은 형태로 지은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.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철거에는 찬반 여론이 갈리기도 했지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현재 경복궁을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선총독부 청사는 해방 후에도 중앙청이란 이름으로 정부청사 기능을 해 왔습니다. 일제 식민지 잔재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아픔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일제가 유린한 상처를 털어내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의 변화를 모아봤습니다.

#1994

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조선총독부 건물



#1995



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된 조선총독부 청사 첨탑



#2010

콘크리트로 1968년에 만든 광화문을 철거하고 고종 중건 당시 기준으로 복원한 광화문 복원식

#2020



경복궁 정문인 광화문



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외관의 경복궁